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춘추 전국 시대(기원전 770 ~ 기원전 221)]

### 01. 주(周)의 쇠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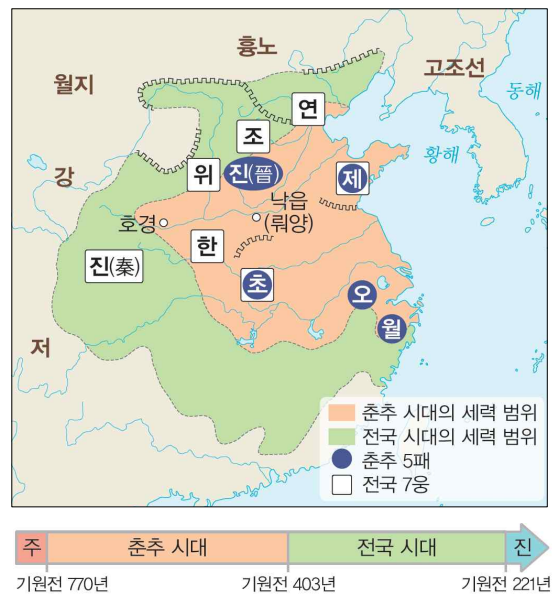
- 주(周)의 왕권과 봉건제를 유지하던 **종법 제도가 약화**되고, **제후들의 독립적인 성격이 강화**됨
- 서주(西周) 시대 ⇨ **동주(東周) 시대(= 춘추 시대)**

|       |  |
|-------|--|
| 춘추 시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목 민족인 <b>견융</b>이 침입해 <b>수도 호경(시안)</b>을 점령하자 주나라 평왕이 제후국 <b>진(晉)</b>과 <b>정(鄭)</b>의 도움을 얻어 <b>낙읍(뤄양)</b>으로 <b>동천(東遷)</b></li> <li>• 공자의 저서 『춘추(春秋)』에서 유래</li> </ul>  |
| 전국 시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진(晉)의 가신이던 조(趙), 위(魏), 한(韓)이 제후로 승격</b></li> <li>• 주(周) 봉건제의 사실상 해체</li> <li>• 유향(劉向)의 저서 『전국책(戰國策)』에서 유래</li> <li>• 기원전 221년 <b>진(秦)왕 정(政, 政)</b>, 재위 기원전 246 ~ 210이 6국을 차례로 병합해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b>시황제(始皇帝)</b>에 오름</li> </ul> |

- **도시 국가가 영토 국가로 발전**

### 02. 춘추 시대(기원전 770 ~ 기원전 403)

- 주(周) 왕실 존중, 형식적으로 봉건제 유지  
: **존왕양이(存王攘夷)**  
↳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 계절존망(繼絕存亡)
- 중앙 집권적 **군현제 · 관료제**의 출현
- 춘추 5패(春秋 五霸)  
: 제(齊, 환공), 진(晉, 문공), 초(楚, 장왕), 오(吳, 합려), 월(越, 구천)
- 회맹(會盟, 제후들의 모임)  
: 회맹의 맹주인 패자(霸者)가 주 왕실을 대신해 통치



### 03. 전국 시대(기원전 403 ~ 기원전 221)

- 주 왕실의 종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상 독립국 행세
- **약육강식(弱肉強食), 하극상 풍조 만연**  
: 강력한 제후들이 왕을 칭하고, 유력 가신이 제후의 지위 찬탈
- 전국 7웅(戰國 七雄)  
: 제(齊), 진(秦), 초(楚), 연(燕), 조(趙), 위(魏), 한(韓)  
: 합종연횡 횡행
- **부국강병을 위한 변법 실시**  
: 진(秦), **상앙(? ~ 기원전 338)**의 군현제 실시, 호적제와 조세 제도 확립, 귀족의 특권 제한 등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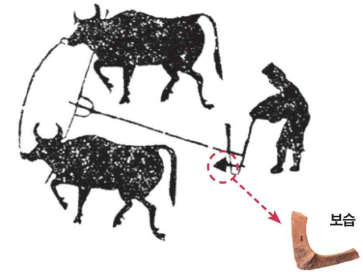
#### ▣ 합종연횡(合縱連橫)

합종과 연횡. 합종은 여섯 나라가 연합하여 진(秦)나라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고, 연횡은 여섯 나라가 각각 진(秦)나라와 화친하고 섬기는 것을 말한다.

## [★춘추 전국 시대의 변화]

### 01. 경제

- **철제 농기구와 우경 보급**  
: 토지 개발 활성화, 농업 생산량 증가
- 제철업 · 제염업 · 직물업 등 발달
- 도시 간 상업 발달, 교통 중심지인 대도시 성장
- 도전 · 포전 등 **청동 화폐** 사용



<철제 보습과 우경>

### 02. 사회

- 토지 사유화의 진전 → 소농민 가족이 사회의 기초 단위로 정착
-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개념 등장
- **철제 무기** 사용에 따른 전쟁 양상 변화  
: 귀족 세력의 전차 중심 → 보병과 기병 중심
- 전쟁에 참여한 **백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철제 투구와 철제 창>

### 03. 학문과 사상

- 1)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출현
  - 부국강병을 위해 개인의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관료로 등용
  - 사(士) 계층의 성장
  -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의 등장, 현실 정치사상 제시  
: 유가, 법가, 도가, 묵가 등이 두드러짐

#### 2) 제자백가 사상

| 구분   | 특징  |
|------|---|
| 유가   | • 공자(BC. 551 ~ BC. 479), 맹자(BC. 372 ~ BC. 289), 순자(BC. 298 ~ BC. 238)<br>• 인(仁), 효(孝), 예(禮) 등 가족 윤리 강조 → <b>도덕 정치</b> 주장<br>• 가족, 사회,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 → 중국의 주류 사상으로 정착 |
| 도가   | • 노자(미상, 춘추 시대), 장자(BC. 369 ~ BC. 289)<br>• 덕치와 법치 모두 반대, 자연 상태의 삶( <b>무위자연</b> )을 주장<br>• 사회적 혼란기에 특히 유행 → 중국인의 자연관과 예술 · 종교 등에 영향                                   |
| 묵가   | • 묵자(BC. 479 ~ BC. 381)<br>• 겸애(兼愛, 차별 없는 사랑) 주장,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것에 반대, 평화 주장<br>• <b>절장(絶裝)</b> , <b>절악(絶樂)</b> 등 검소한 생활 강조   |
| 법가   | • 상앙(? ~ BC. 338), 한비자(BC. 280 ~ BC. 233), <b>이사(? ~ BC. 208)</b><br>• 부국강병을 추구하기 위해 <b>군주의 권위를 존중</b> 하고, <b>엄격한 법치(法治)</b> 주장                                       |
| 외(外) | • 병가(병법), 종횡가(외교술), 음양가(자연법칙), 명가(논리학) 등  |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통일 왕조 진**(秦, 기원전 221 ~ 기원전 206)]

### 01. 통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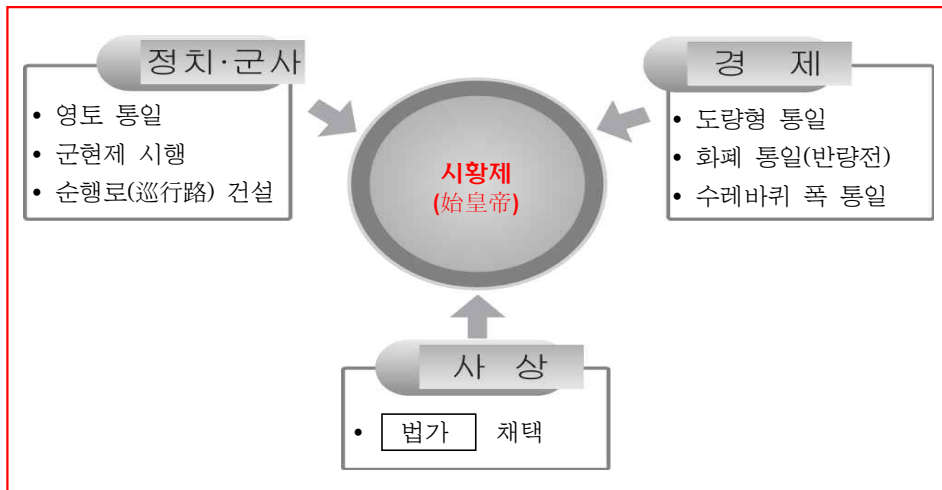
- 서북쪽에 위치해 북방 민족의 철기와 기마 전법 수용
- 상앙(? ~ 기원전 338)의 변법  
: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으로 국력 증대



〈진(秦)의 영역〉

### 02. **시황제(始皇帝, 재위 기원전 246 ~ 기원전 210)의 정책**

- 진왕 정(政), 셴양(咸陽) 도읍
- 승상 이사(? ~ 기원전 208)의 개혁 정치
-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군현제(36개 군) 시행, 순행로(巡行路, 전국적 도로망) 건설**  
: 지방 유력자의 수도 이전
- **남야대각석(郾邪台刻石, 기원전 219)**
- **화폐[반량전(半兩錢)], 도량형, 문자[소전체(小篆體)], 수레바퀴의 폭 등 통일**
- **분서갱유(焚書坑儒, 기원전 213 ~ 기원전 212)**  
: 법가 이외의 사상을 탄압하고 사상의 통일 모색 → 비판 세력 억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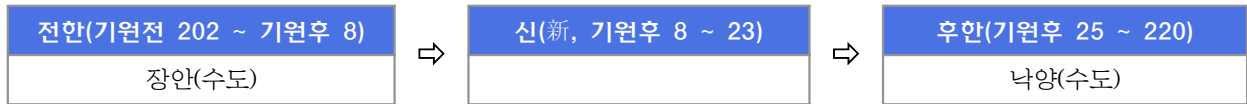
- 몽염의 흉노 정벌(기원전 215) 이후 **만리장성 축조**
- 영토 확대(중국 영토의 원형 마련)  
: 광둥 지방과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 확장

### 03. 멸망(기원전 206)

- 법가 사상 위주의 가혹한 법치
- 무리한 대외 원정, 대규모 토목 공사 →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과 희생 요구
- 시황제 사후 **진승·오광의 난(기원전 209 ~ , 장초(張楚) 개창)**을 계기로 각지에서 농민 반란 발생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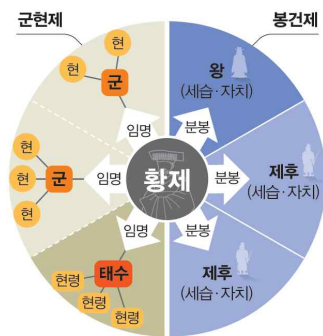
### □ 한(漢, 기원전 202 ~ 기원후 220)의 구분



### [★전한(前漢, 기원전 202 ~ 기원후 8)]

#### 01. 고조(유방, 재위 기원전 202 ~ 기원전 195)

- 유방 ⇄ 초패왕 항우  
: 중국 재통일
- 장안(長安) 도읍
- 군국제 실시  
: 군현제(중앙)  
: 봉건제(지방)
- 흉노에 물자 제공으로 평화 유지(기원전 198)



〈한의 군국제〉

#### 02. 무제(유철, 7, 재위 기원전 141 ~ 기원전 87)

- 군현제의 전국 확대
- 유교의 통치 이념 채택(기원전 136)  
: 동중서의 건의 수용
- 대외 확장  
: 장건, 대월지국 파견(기원전 139)  
: 위청·곽거병 장군 등 흉노 정벌(기원전 129 ~ )  
: 하서 4군 개척(기원전 119)  
: 남비엣 정복(9군 설치, 기원전 111)  
: 위만 조선 정복(4군 설치, 기원전 108)
- 재정 확충 정책  
: 잦은 대외 원정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한 무제의 영토 팽창〉

| 구분    | 내용   |
|-------|--|
| 전매 제도 | • <u>소금, 철, 술 등의 상품을 국가에서 전매</u>                             |
| 균수법   | • 지역별 물가 조절책<br>: 조세로 거두어들인 물자를 값이 비싼 곳에 옮겨 팔아 물자의 유통을 원활케 함 |
| 평준법   | • 계절별 물가 조절책<br>: 각지의 물자를 쌀 때 사고 비쌀 때 되팔아 물가 조절              |
| 중세 조치 | • 중농역상 정책으로 상업에 중과세(농민 세금의 5배 이상), 많은 파산자 발생                 |
| 화폐 통일 | • <u>오수전(五銖錢) 주조와 유통</u> (개인적인 화폐 주조 금지)                     |

[신(新, 8 ~ 23)]

### 01. 건국

- 한 무제 사후(기원전 87) 외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
- 외척 왕망(王莽, 기원전 45 ~ 기원후 25)의 왕위 찬탈

### 02. 왕망의 개혁 정치와 멸망

- 이상적 복고 정치 실시
- : 정치적 이상은 주(周)나라
- : 토지 국유화, 왕전(王田) 지급, 노비 매매 금지 등

천하의 토지를 왕전(王田)이라 부르고 노비를 사속(私屬)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 모두 매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남자가 8명이 다 차지 않았는데 토지가 1정(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를 친족과 인근 마을에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 관청에서 술과 소금, 철기를 전매하고 동전을 주조하며, 산림수택에서 물자를 수취하는 자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 『한서』, 왕망전

- 호족의 반발, 적미(赤眉)의 난으로 멸망

[후한(後漢, 25 ~ 220)]

### 01. 광무제(유수, 재위 25 ~ 57)

- **튀양(낙읍) 도읍**, 호족 연합 정권
- 전한의 부흥 추구, 유교 장려

### 02. 명제(明帝, 재위 57 ~ 75)

- **반초**(32 ~ 102)의 서역 정벌로 비단길 경영권 회복

### 03. 멸망(220)

- 환관과 외척, 관료들의 세력 다툼으로 중앙 통치력 약화
-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 · 횡포 심화

: **황건적(黃巾賊)의 난**(장각, 184 ~ )을 비롯한 농민 반란 발생 → 위, 촉, 오의 삼국 등장

[한(漢) 대의 지배 계층]

- **호족의 성장**
- : 대토지 소유, 지역 사회 지배
- : **향거리선제**를 통해 관료 진출

**향거리선제**는 효렴(孝廉, 효자와 청렴한 사람), 현량(賢良), 무재(茂才) 등의 과목에 적합한 인재를 향론(鄉論)에 의하여 추천하고 이들 유덕자들이 관료로서 국정을 담당하게 한 **한(漢) 대의 인재 선발 제도**이다. 한 대의 사회 조직은 100호 단위의 리(里)를 중심으로 한 촌락이었다. 몇 개의 리(里)가 향(鄉)이 되어 농촌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리(里)는 촌락의 대표인 부로(父老)를 통해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는데 호족의 성장은 리(里) 중심의 향촌 자치 질서를 파괴하고 호족 중심의 체제를 만들었다. **이 호족들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대지주로 향거리선제를 통해 통치 체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업 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이들의 대토지 소유 확대는 자영농의 몰락을 가져왔고 무제 말년에 한전법(限田法)이 실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한(漢) 대의 경제]

#### 01. 농업 생산력 증대

- 철제 농기구의 보급, 농업 기술 발달

#### 02. 상업 발달

- 비단길을 통한 동·서 교역 발달
- 장안, 뤼양 등이 상업 중심지로 발전
- 오수전(五銖錢)을 주조하여 전국에 유통



〈오수전〉

### [한(漢) 대의 문화(중국 문화의 기틀 마련)]

#### 01. 사상과 종교

- 유교의 관학화
  - : 유가 사상이 황제와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통치 이념으로 발전
  - : 태학(太學) 설립, 오경박사(五經博士) 설치
  - : **훈고학(訓詁學, 문자와 어구를 해석하고 주석 추가)**, 경학(經學) 발달
- 불교
  - : 비단길을 통해 **대승 불교 전래**(후한 명제, 67)
- 신선 사상과 민간 신앙, 도가 사상의 결합
  - : **태평도(장각) · 오두미도(장릉)** 등으로 발전
  - : 후한 말 농민 반란에 영향



사마천(BC. 145 ~ BC. 85)

#### 02. 역사 편찬

- 『사기(史記)』 [= 『태사공서(太史公書)』, 기원전 108 ~ 기원전 91]
  - : **사마천**(기원전 145 ~ 기원전 85)
  - : 기전체 역사서, **정사 서술의 모범**
  - : 전설 시대 ~ 한 무제 때까지의 역사 기술
- 『한서(漢書)』
  - : 반고(? ~ 92),
  - : 전한의 역사 정리

#### ▣ 기전체(紀傳體)

『사기』와 『한서』는 모두 **기전체 방식**으로 편제되었다. 기전체는 한 무제 때 사마천이 창시한 역사 서술 방식으로, **본기(제왕), 세가(제후), 연표, 지, 열전(인물)** 등으로 구성되었다.

#### 03. 제지술

- 채윤(채륜)의 개량으로 종이 보급 확대(105)
  - : 학문과 사상의 발전 촉진
- **탈라스 전투(751) 이후 이슬람 세계 전파**

**개념 Check**

- ① 기원전 8세기경 ( )족의 침입으로 주(周) 왕조가 수도를 ( )으로 옮기면서 동주 시대가 전개되었다.
- ② 춘추·전국 시대에 정치적으로 봉건제가 붕괴되고, ( )가 등장하였다.
- ③ 제자백가 중에서 ( )는 가족 윤리 확립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였고, ( )는 덕치와 법치를 반대하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내세웠다.
- ④ 진(秦) 시황제는 ( )를 일으켜 사상을 통제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였다.
- ⑤ 한 고조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 )를 실시하였다.
- ⑥ 국가 재정 확충 정책으로 한(漢) 무제는 ( )을 전매하고,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하였다.
- ⑦ 한 대 호족들은 관리 선발 제도인 ( )를 통해 관료로 나아가 중앙 정치를 주도하였다.
- ⑧ 사마천이 저술한 『\_\_\_\_\_』는 중국 정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다.

**유형 CHECK!!**

**01**

밑줄 친 ‘이 책’ 이 저술된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수능]

이 책의 본래 이름은 『태사공서』로 천문, 기록 등을 담당하던 태사령이라는 저자의 관직명에서 비롯되었다. 저자는 전설을 포함하여 당시까지의 역사를 분기, 세가, 열전, 서, 표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훗날 기전체라고 불리며 정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다. 저자는 부친의 유언을 받들어 저술 작업을 지속하던 중 투옥과 형벌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책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그의 노력은 인간 승리의 사례로 평가 받는다.

- ① 훈고학이 발달하였다.
- ② 수시력이 제작되었다.
- ③ 『홍루몽』이 출간되었다.
- ④ 『천공개물』이 간행되었다.
- ⑤ 『오경정의』가 편찬되었다.

**02**

밑줄 친 ‘이 시대’ 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9월 모의평가]

진(晉)이 한(韓), 위(魏), 조(趙) 3국으로 분열하는 등 세력 관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 소수의 강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대에 각국은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병역 부담이 없던 농민들도 모두 징병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써 대규모 보병이 전투의 주력이 되는 군사 전술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장평 대전의 경우 진(秦)에 사로잡힌 조나라 병사만 사십여 만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 ① 『홍루몽』을 읽는 상인
- ② 변경으로 파견되는 절도사
- ③ 수시력 편찬에 참여하는 관리
- ④ 지방의 인재를 추천하는 중정관
- ⑤ 변법 시행을 주장하는 법가 사상이



03

밑줄 친 ‘황제’의 제위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2021-6월 모의평가]

승상 이사가 황제에게 조정에서 쓰는 것과 다른 문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고 아뢰었다. 이에 각지에서 쓰던 여러 형태의 문자를 금지하고 소전(小篆)의 문자만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서를 불살랐으며, 백성을 대거 징발하여 만리장성 축조 및 전쟁 등에 동원하였다.

- ① 영제거 등 대운하가 건설되었다.
- ② 일조편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 ③ 행, 작과 같은 동업 조합이 결성되었다.
- ④ 옥수수, 감자 등의 외래 작물이 도입되었다.
- ⑤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읽어 보기

한 대 유교의 발달과 통치 이념화



무제의 책문에 대해서 동중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치켜세워 제왕으로 만들 때에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드시 저절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천명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 제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덕과 교화의 힘을 빌려 다스릴 뿐 형벌의 힘을 빌려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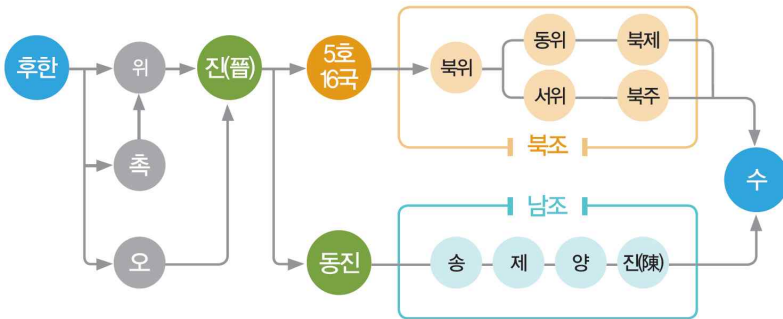
- 『한서』

한 무제는 즉위 당시 북방의 흉노와 지방의 제후 세력이 황제권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국가 통치에 대한 대책을 구하였다. 이때 동중서는 황제의 권력은 하늘에서 비롯되었고 상하 질서의 예법은 유가를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올렸다. 무제는 동중서의 주장이 황제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유가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태학을 세워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위 · 진 · 남북조 시대(220 ~ 589) - 중국 문화권의 확대]



### 01. 후한 멸망 후 삼국의 정립(鼎立), 220 ~ 280

- 화북의 위(魏, 조조, 220 ~ 265), 사천의 촉한(蜀漢, 유비, 221 ~ 263), 강남의 오(吳, 손권, 222 ~ 280)의 대립
- 위가 촉 병합(263) ⇒ 사마염(司馬炎), 진(晉) 건국(265) ⇒ 진(晉)이 오(吳) 병합(280)

### 02. 5호 16국(五胡十六國) 시대(304 ~ 439)

- 서진(西晉) 황실의 내분  
: 5호(흉노·저·갈·강·선비족)의 침입과 화북 진출
- 서진의 강남 이동  
: 건강(= 난징)에서 동진(東晉) 건국(317)

### 03. 남북조 시대(439 ~ 589)

#### 1) 북조(화북 지방, 양쯔 강 이북)

- 북위(선비족 탁발씨, 386 ~ 535)의 화북 지방 통일(439)
- ★효문제(孝文帝, 7, 재위 471 ~ 499)  
: 균전제 실시(485)  
: 삼장제(인장·리장·당장) 도입(486)  
: 평성(다둥)에서 뤼양(낙양)으로 천도(493)  
: 적극적 한화정책

#### ▣ 효문제의 호한 융합 정책

북위의 효문제는 뤼양으로 천도하고 한족의 문물을 수용하는 한화 정책을 실시하여 선비족에게 한족의 성씨를 쓰게 하였으며,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다. 이를 통해 남북조 시대에는 북방 민족(호족)과 한족의 문화 융합(호한 융합)이 촉진되었다.

↳ 선비어·선비족 복장 금지, 한어·한족 문화 수용, 황실 성씨로 원 씨 사용

: 전통적인 선비족 귀족층의 반발로 효문제 사후 귀족들 간에 내분 발발

- 서위(535 ~ 557)·동위(534 ~ 550)로 분열 ⇒ 북주(557 ~ 581)·북제(550 ~ 577)로 계승

#### 2) 남조(강남 지방, 양쯔 강 이남)

- 토착민과 이주민 대립, 문벌 정치의 폐단으로 정치 불안 → 빈번한 왕조 교체
- 동진(317 ~ 420) ⇒ 송(420 ~ 478) ⇒ 제(479 ~ 502) ⇒ 양(502 ~ 557) ⇒ 진(557 ~ 589)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경제]

#### 01. 사회

- 위(魏), 9품중정제 실시(220)

: 유력 호족의 관직 독점

- 유의가 아뢰었다. “지금 중정관(中正官)을 두어 구품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의 높고 낮음이 그의 뜻에 달려 있어 임금의 권세와 은혜를 제멋대로 가지고 놀며 천자의 권한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상품(上品)에는 천한 가문 출신이 없으며, 하품(下品)에는 권세가가 없다고 합니다.”
- 9품 중정제가 시작될 때는 고을에서 공정하게 논의하였으므로 …… 후에 이것이 변질되어 관위(官位)의 높고 낮음으로 품위(品位)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 높은 관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고귀하다고 생각하게 되자 …… 인간의 보잘 것 없는 부분만 골라서 따지는 나쁜 풍토가 만연하여 그 폐단이 실로 적지 않았다.

- 『진서』

- 문벌 귀족 사회 형성

: 대토지 소유, 중앙 고위직 독점으로 권력 확대

#### 02. 경제

- 북위(北魏), 균전제(均田制) 실시(485)

: 민생 안정과 자영농 육성 목적, 수·당으로 계승

|             |   |
|-------------|---|
| 둔전제<br>(위)  | • 조조가 균량 문제 해결을 위해 허창(許昌) 지구에서 실시한 제도로 국가가 농민들을 모집하여 소작료를 받고 경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 → 균전제 형성에 영향   |
| 점전제<br>(서진) | • 대토지와 노비 소유를 제한하는 한편, 국가가 농민에게 정해진 토지를 지급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의무적으로 경작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정착과 토지 개간을 꾀한 정책   |
| 균전제<br>(북위) | • 1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에게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호족의 대토지 소유를 견제하고 민생의 안정과 조세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러나 <u>노비와 경작용 소(4마리로 제한)에도 토지를 지급하여 이를 소유한 호족 층이 그만큼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u> 당(唐) 균전제의 기초가 되었다. |

- 강남 개발 본격화

: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들에 의해 창장 강 유역 개발(개간, 농경 기술과 벼농사 발달 등)

: 강남의 경제력 향상, 남조의 인구 증가

###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

#### 01. 특징

- 남조, 북조에서 각기 다른 문화 발전

: 북조 - 유목민의 문화에 한족 문화가 더해져 발달,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 존중

: 남조 - 귀족 중심의 문화 발달, 노장 사상과 청담 사상 유행

- 수·당 대 문화 번영의 토대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

북조 문화에는 유목민의 강건한 기풍이 가미되었고, 국가적으로는 유교를 존중하였다. 불교는 국가나 문벌 귀족의 보호를 받아 융성하였는데, 원강·릉면 석굴 사원으로 대표되는 불교 미술도 꽃피었다.

남조에서는 문벌 귀족 사회가 전개되었고 노장사상이 주목받으면서 세속을 떠나 인물과 철학을 논하는 청담 사상이 유행하였다. 청담 사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죽림칠현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민간 신앙과 도가 사상이 융합된 도교가 경전을 갖추고 발전하였다.



〈원강 대불〉

### 02. 불교의 발달

- 불교의 중국화 진행 → 불경의 한자 번역, 불교 미술 발달
- 북조의 여러 왕조 → 국가적으로 지원하여 왕권 강화에 이용  
: 원강(대동, 460), 둔황 막고굴, 룡면(493 ~ ) 등 석굴 사원 조성
- 명승 배출

|             |           |   |
|-------------|-----------|---|
| 법현          | 342 ~ 423 | • 동진의 승려, 인도(굽타 왕조, 파탈리푸트라) 순례, 『불국기』 저술(416) |
| 구마라습(쿠마라지바) | 344 ~ 413 | • 서역 승려, 화북의 여러 국가에 머물며 불경 번역                 |
| 달마          | ? ~ 528   | • 선종의 개조                                      |

### 03. 도교

- 태평도(太平道), 오두미도(五斗米道)가 민간 신앙,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도가 사상과 결합해 성립
- 북위 구겸지(? ~ 448)에 의해 교단으로 체계화
- 북위(386 ~ 534)의 국교(國敎)

### 04. 노장 사상, 청담[清談, 세속의名利(名利)를 떠난, 맑고 깨끗한 담화(談話)] 사상 유행



〈죽림칠현(竹林七賢)〉

- 지식인들의 현실 도피적 풍조 확산  
: 염세적, 개인적 향락 추구
- 현학(玄學) 풍조 유행  
: 유교 경전도 노장 사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
- 서진(西晉, 265 ~ 316)의 죽림칠현  
: 산도, 왕용, 유령, 완적, 완함, 혜강, 향수

### 05. 문학

- 4·6 변려체의 문장 유행  
: 도연명(365 ~ 427)의 『귀거래사(歸去來辭)』(405)
- 양(梁, 502 ~ 557) 소명태자(501 ~ 531)의 『문선(文選)』



〈여사잠도(당 대 모사본)〉

### 06. 서예와 미술

- 왕희지(동진, 303 ~ 361)의 왕희지체
- 고개지(동진, 344 ~ 406), 『여사잠도(女史箴圖)』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수(隋)의 성립과 멸망(581 ~ 618)]

### 01. 문제(양견, 재위 581 ~ 604)

- 북주의 외척 출신으로 수(隋) 건국(581)
- 남조의 진(陳)을 멸망시키고 남북조 통일(589)
- 9품 중정제를 폐지하고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선거제) 도입(587)  
: 문벌 귀족 세력 견제
- 중앙 집권 체제 강화  
: 중앙(3성 6부제), 지방(주·현)
- 귀족의 사병 소유를 금지하여 군사력 강화
-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정비 → 국가 재정 안정, 군사력 강화
- 개황(開皇, 연호) 율령 제정
- 대흥성(大興城) 건설, 운하 광통거(廣通渠) 설치(584)
- 고구려 1차 원정(598)

### 02. 양제(양광, 재위 604 ~ 618)

- 운하 통제거(通濟渠, 605), 영제거(永濟渠, 608) 설치하여 화북 ~ 강남을 잇는 대운하 건설(610)  
: 강남 지방의 세금 운반, 남북 간 물자 유통 활성화 및 경제 통합 강화



분열된 남북조를 통일한 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중국의 강을 남북으로 잇는 대운하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584년 문제가 광통거를 개통하고, 610년 양제가 대운하를 완성하였다. 대운하는 뤄양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여항(항저우)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탁군(베이징)을 연결하였다. 또한 통제거와 황허강의 교차점에 수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뤄양, 대흥(장안)으로의 교통로가 정비되었다. 대운하와 이를 잇는 교통로의 건설은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수도 대흥으로 흡수하여 수의 중앙 집권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수의 대운하는 당 이후에 사회적·경제적 교통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 적극적인 대외 진출 추진  
: 돌궐 공략과 기미 정책 추진  
: 안남(베트남 북부) 정벌  
: 3차례(612·613·614)에 걸친 고구려 원정

### 03. 멸망

- 대규모 토목 사업에 따른 인력 동원
- 대규모 군사를 동원한 고구려 원정 실패
- 각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으로 2대 38년 만에 멸망(618)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당(618 ~ 907)의 발전과 쇠퇴]

#### 01. 고조[이연(李淵), ①, 재위 618 ~ 626]

- 장안(長安)을 수도로 건국(618)

#### 02. 태종[이세민(李世民), ②, 재위 626 ~ 649]

- 현무문의 변(玄武門之變, 626)
  - : 왕위 쟁탈, 태자(이건성)와 동생(이원길)을 살해하고 집권
- 정관(貞觀)의 치세(治世)[貞觀之治]
  - : 당(唐)의 기초 확립, 제도 개혁과 정비
  - : 중앙(3성 6부제), 지방(주·현), 과거제 정비
  - :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의 세법 정립



〈수, 당 대의 중국〉



#### □ 균전제(均田制)

- 영업전(永業田) : 세습 토지
- 구분전(口分田) : 60세 반납

#### □ 조용조의 세법

- 조(租) : 토지세
- 용(庸) : 노역
- 조(調) : 특산물

#### □ 부병제(府兵制)

- 농병일치의 의무병제

- 영토 팽창
  - : 동돌궐 정복(→ 안북도호부 설치, 630), 토번·위구르 제압, 신라와 동맹 체결(648)
  - : 서역 지방 장악 → 비단길 경영권을 확보하여 동서 교류 촉진

#### 03. 고종[이치(李治), ③, 재위 649 ~ 683]

- 공영달, 『오경정의(五經正義)』 완성(653)
- 서돌궐 정복(657)
-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660)와 고구려(668) 멸망 → 나·당 전쟁
- 안남도호부 설치(679 ~ )

#### 04. 무·위의 화(690 ~ 710)

- 측천무후(則天武后, 고종의 황후)의 집권
  - : 황제 즉위(690 ~ 705), 주(周) 건립
  - : 불교 숭상, 과거 출신자를 중용하여 귀족 세력 약화
- 위황후(韋皇后)의 집권과 권력 전횡
  - : 중종(④·⑥, 재위 683 ~ 684, 재위 705 ~ 710)의 황후, 중종 독살(710)
  - : 절도사 설치(변경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한 군사령관, 군사·재정·행정 3권 장악, 710)



〈측천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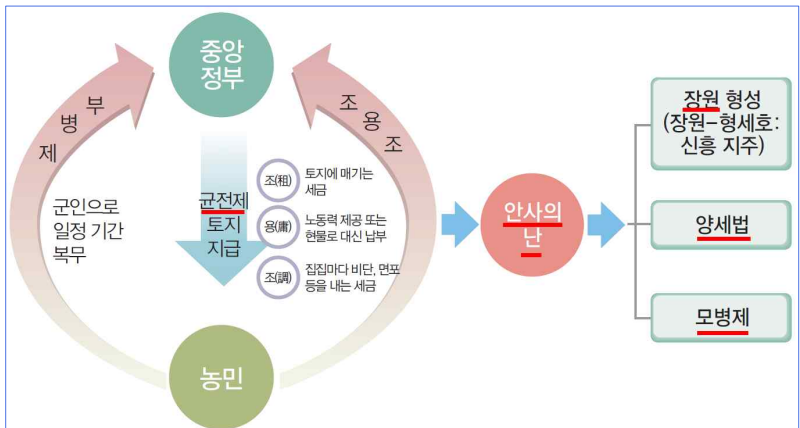
[★당(618 ~ 907)의 발전과 쇠퇴]

05. **현종**[이융기(李隆基), 7, 재위 712 ~ 756]

- **개원(開元)의 치세(治世)**, 713 ~ 741  
: 무후·위후 시기에 누적된 폐단 척결
- **천보(天寶, 742 ~ 756)의 쇠(衰)**  
: 환관 고력사(高力士) 신임  
: 비(妃) 양옥환(양귀비) 총애 → 양국충(楊國忠, 양쇠) 중용  
: 사회·경제 혼란 발생
- **탈라스 전투(The Battle of Talas, 751)** 패배

06. **안·사(安史)의 난(755 ~ 763)**

- 배경  
: 절도사 세력의 성장  
: 양국충(楊國忠)의 권력 전횡
- 전개  
: 천보 14년 절도사 **안녹산**(703 ~ 757)이 범양(范陽)에서 반란 ⇨ 뤼양(洛陽) 점령 ⇨ 고선지 장군의 장안(長安) 진출 저지 ⇨ 안녹산의 장안성 함락(756) ⇨ 안경서의 사주로 안녹산 피살(756) ⇨ **사사명**(? ~ 761)의 지휘권 계승 ⇨ 사조의의 사사명 살해 ⇨ 당군(唐軍)이 사조의의 군대 격파(763)
- **안사의 난을 전후한 당의 사회 변화**



07. 쇠망

- 번진(藩鎮) 절도사들의 독자적 지배권 강화 → 중앙 정부의 통제력 약화, 환관과 관료의 권력 다툼
- 장원(莊園) 증가 ⇨ 농민 몰락 ⇨ **황소의 난(875 ~ 884)** 등 농민 봉기 발발로 쇠퇴 가속
- 위구르, 토번 등의 침입으로 정복지의 대부분 상실
- **절도사(節度使) 주전충**에게 멸망(907)  
↳ 5대 10국 시대 전개(907 ~ 979)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당(618 ~ 907)의 통치 제도]

## 01. 율령 체제의 완성(639)

- 율(형법) · 령(행정법) · 격(율령의 보충 규정) · 식(시행 세칙)  
: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

## 02. 통치 체제

- 경조(京兆) 장안(長安)
- 중앙(3성 6부), 지방(부 ⇨ 10도 ⇨ 주 ⇨ 현)

## 03. 관리 선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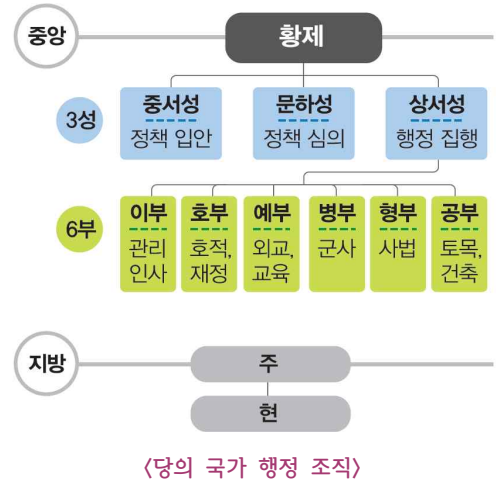
- 과거(科擧)와 음서(蔭敍)  
: 문벌 귀족의 관직 독점 · 특권 차지  
: 과거제를 통한 관리 선발에서도 문벌 중시

## 04. 대외 정책

- 정복 지역에 도호부(都護府) 설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미 정책(羈縻政策) 실시

## 05. 균전제(均田制)

- 정남에게 영업전(營業田, 세습 허용), 구분전(口分田, 60세 반납) 지급
- 토지와 농민을 일체로 파악 → 농민을 토지에 묶어 조세(조 · 용 · 조) 징수와 병역 부과(부병제)
- 자연농 육성, 중앙 집권을 위한 경제 기반 마련



[★당(618 ~ 907)의 사회와 경제]

## 01. 사회

-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

## 02. 경제

- 농업 생산력 증대  
: 화베이(華北) 지방에서 2년 3작 가능
- 차(茶) 재배 성행
- 상업 발달  
: 개원통보(621 ~ ) 유통, 비전(飛錢, 일종의 약속 어음) 사용  
: 행(行, 상인 조합) 출현  
: 장안, 휘양, 양저우, 광저우 등 대도시 성장
- 시박사(市舶司) 설치(714)  
: 광저우, 무역 활동 감시와 세금 징수 담당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당(618 ~ 907)의 문화]

#### 01. 개방적·국제적 성격

- 동아시아 문화권(유교·한자·불교·율령) 형성
- 수도 장안(長安)
  - : 발해의 상경성, 일본의 헤이조쿄 건설(710)에 영향
  - : 다양한 외래 종교 사원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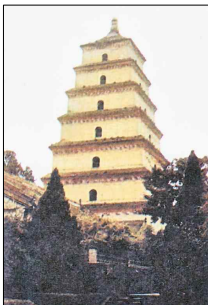
도에는 변치 않는 이름이 없고, 성인도 변치 않는 격식이 없다. 모두 상황에 따라 가르침을 펴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을 따름이다. 태종께서 새 왕조를 빛나게 하시고 현명한 성인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실 때, …… 정관 12년 7월에 “…… 대진국의 사제 아라본(阿羅本)이 멀리서 장안까지 와서 경전과 성상을 바쳤다. 그 교리를 살펴보니 …… 만물을 구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천하에 행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조서를 내리셨다. 그래서 담당 관청이 곧 장안의 서북쪽 구역에 대진사를 세우고, 21명의 승려를 인가해 주었다.

- 대진 경교 중국 유행비(781)

#### 02. 귀족적 성격

- 시문학 발달
  - : 귀족 취향의 시(詩) 유행 → 시성 두보(『춘망』), 시선 이백 등이 활약
  - : 문장 → 한유(768 ~ 824), 유종원(773 ~ 819)
- 유학의 발달
  - : 과거 시험의 기준
  - : 공영달(574 ~ 648), 『오경정의(五經正義)』 편찬(653)
  - ↳ 훈고학의 집대성, 과거 수험서로 활용

#### 03. 종교의 발달



대안탑(645)

- 도교
  - :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융성, 각지에 도관(道觀, 도교 사원) 건립
- 불교
  - : 불경 보관을 위한 대안탑(大雁塔) 건설
  - : 현장(600 ~ 664)의 『대당서역기』(비단길, 인도 기행문, 646)
  - : 의정(635 ~ 713)의 『남해기귀내법전』(인도 여행기)
  - : 중국화 촉진
    - ↳ 혜능(638 ~ 713), 남종선(南宗禪) 창시



〈당삼채〉

#### 04. 공예

- 당삼채(이국적 특색)



조·용·조와 양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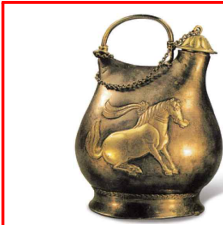
- ① 부역의 법은 모든 정(丁)에 대해 해마다 2석을 조(租)로 바치게 한다. 조(調)는 향토 특산물에 따라 비단 명주의 경우 모두 2장(丈)을, 면포의 경우 2장 5척을 바치게 한다. …… 정(丁)에 대해서는 해마다 20일의 역(役)을 부과한다. - 『구당서』
- ② 전국의 백성을 현재 거주한 지역에 호적 등기하고, 정남 혹은 중남에 관계없이 토지와 재산의 다과에 따라 납세의 등급을 정한다. 세액은 호세와 지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여름과 가을 양 시기로 나누어 징수한다. - 『신당서』 양염전

당의 기미 정책



당 태종 때부터 본격화된 영토 확장은 8세기 중엽 절정을 이루었다. 당은 새로 정복한 땅에 도호부(都護府)를 두어 관리와 군대를 머물게 했는데, 동돌궐을 무너뜨린 뒤에는 안북 도호부, 서돌궐을 무너뜨린 뒤에는 안서 도호부를 두었다. 이처럼 정복지에 6개의 도호부를 설치하고 토착 세력에 자치권을 주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가축을 다룰 때 사용하는 말고삐와 쇠코뚜레[기미(羈縻)]에 비유하여 기미 정책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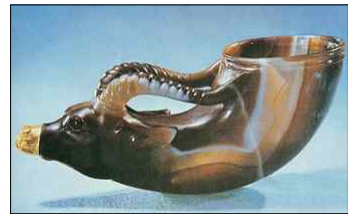
당 문화의 국제성



<은제 물병>



<에빈도(禮賓圖)>



<마노(瑪瑙) 잔>

개념 Check

- ① 북위의 황제 ( )는 튀양으로 천도하고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②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향촌의 인재를 재주와 평판 등에 따라 선발하는 ( )가 실시되었다.
- ③ 북위에서 자영농 육성을 위해 실시한 ( )는 수·당으로 계승되었다.
- ④ 남조에서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떠나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 ) 사상이 유행하였다.
- ⑤ 수의 문제는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 )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⑥ 수의 양제는 화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 )를 건설하고 돌궐과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 ⑦ 당은 태종 때 율령 체제를 확립하고 ( )을 정복하는 등 발전하였으나 현종 때 일어난 ( ) 이후 절도사의 독자적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쇠퇴하였다.
- ⑧ 안·사의 난을 전후하여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군사 제도는 ( )로 바뀌게 되었다.
- ⑨ 당 대의 공예 분야에서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특색을 지닌 ( )가 유행하였다.
- ⑩ 당의 수도 ( )에는 조로아스터교, 경교, 마니교 등 서역 종교의 사원이 건립되었다.

### 01

(기)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 ① 양명학이 발달하였다.
- ②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
- ③ 이백, 두보가 활약하였다.
- ④ 『청명상하도』가 제작되었다.
- ⑤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 03

밀줄 친 ‘빈린’ 이 일어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수능]

천보 4년, 양옥환은 귀비로 책봉되었다. 황제의 총애를 받은 덕분에 그녀의 친족들은 벼락출세를 하였다. 그중 재상이 된 양국충은 안녹(록)산을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려다가 안녹산의 반란을 초래하였고, 황제를 모시고 피란 가던 도중에 양귀비와 함께 죽음을 맞았다.

- ① 탈라스 전투에 참전한 군인
- ② 『청명상하도』를 감상하는 황제
- ③ 균전제의 실태를 조사하는 관리
- ④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가는 신도
- ⑤ 불경을 구하러 인도로 떠나는 승려

### 02

(기)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기)의 황제는 삼장제를 통해 내치를 다지고, 도읍을 튀양으로 옮겼다. 이후 새 도읍 튀양에서 관리들을 소집하여 엄히 질책하기를, “짐이 보건대, 부녀자의 복식이 여전히 선비족의 풍습 그대로 소매는 짧고 옷깃이 목을 조이는 모양이오. 경들은 왜 호복을 금지하라는 짐의 조칙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 ① 균전제를 시행하였다.
- ② 천호제를 운영하였다.
- ③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 ④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⑤ 황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하였다.

### 04

밀줄 친 ‘건설’ 이 이루어진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9월 모의평가]

상서우승 황보의에게 명하길, 황허 강 남쪽과 화이하 강 북쪽에 사는 여러 군의 백성 일백여만 명을 징발하여 통제거를 건설하게 하였다. …… 화이하 강 남쪽에 사는 백성 십여만 명을 징발하여 산양에서 양자에 이르러 창장 강에 들어가는 한구를 건설하게 하였다. 그 옆에는 황제가 행차하는 길을 만들고 장안에서부터 강도에 이르기까지 황제가 머물 별장을 40여 곳에다 설치하였다.

- 『자치통감』

- ①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 ②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 ③ 만한 병용제를 채택하였다.
- ④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를 운영하였다.
- ⑤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금군을 강화하였다.